



침묵 문화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1921~97)는 브라질 출신의 20세기 대표적 교육 사상가이다. 프레이리의 교육론 핵심은 의식화(conscientization)와 프랙시스(praxis)이다. 의식화는 맹목적이 아닌 각성을 뜻하는 “눈뜸”이고, 프랙시스는 꾸준한 실습을 통한 “성찰과 행동의 변증법적 관계 맺음”이다.

프레이리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만 아니라 사회변화를 위한 희망(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프레이리는 교육이 비정치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듀이의 교육철학과는 달리 교육은 반드시 정치적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주로 문맹인 성인과 빈곤층 자녀를 위해 학교가 아닌 문화 씨클 운동을 전개해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돌며 문맹 퇴치에 힘썼고 1968년에는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를 출간했다. 이 저서는 억눌린 피억압자를 위한 해방교육을 주창한 것으로 제3세계의 민중 교육학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그의 헌신적인 피억압자를 위한 실천 교육의 공적으로 세계 각국의 28개 대학은 프레이리에게 명예교수직을 수여했다.

16세기 초 유럽의 강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 대륙을 침략해 원주민들을 노예노동으로 혹사하고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1822년 포르투갈의 왕가를 받드는 왕국으로 어정쩡한 독립을 쟁취했으나 민주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포르투갈 황제가 두려워 민중은 머리를 조아렸고 브라질의 정치, 외교, 언론, 학교는 자신의 목소리가 없는 채로 기형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한편, 포르투갈 식민 지배하에 실시된 대토지 소유에 의한 경제적 착취와 노예노동으로 민중의 삶은 빈곤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으로 인해 브라질은 명목상 독립은 되었으나 계급사회의 출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 계급사회는 자연적으로 폐쇄성을 띠게 되었다. 그 계급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적 명령체계는 민중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폐쇄사회는 또한 분파주의자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 분파주의자들은 스스로 갇힌 채 자신들만의 진리를 조작해 민중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 요컨대 분파주의자들의 행동 양식은 타인을 정복하고, 분할지배와 조작, 문화침략을 동원해 침묵 문화를 형성한다.

프레이리가 개념화한 침묵 문화(culture of silence)의 생성 과정을 충실하게 분석하지 않고는 그것을 해체할 방법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프레이리는 계급사회의 부당한 질서, 지배 권력의 억압과 폭력, 피억압자의 침묵, 길들이기가 작용하여 비인간화의 구조가 일반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 말을 할 권리를 잃고 지배자들의 언어를 내면화한 피억압자들은 자신들의 억압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배자들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지배자의 언어를 내면화하고 자유를 두려워한 나머지 침묵하게 된다. 지배자들은 현실을 거역할 수 없게 체념시키고 세계를 읽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침묵 문화가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프레이리는 침묵 문화가 형성되는 구조적 원인을 정치 경제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 두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프레이리에 의하면 침묵 문화는 억압사회와 종속사회 간의 관계 방식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 관계 방식은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관철된다. 세계질서는 가장 큰 구조로 억압사회와 종속사회가 존재하며, 각 사회는 작은 구조로서 내부에 중심사회와 의존사회로 구성된다. 어느 경우라도 중심사회가 의존사회에 미치는 행동은 지시적 성격을 띠게 된다. “종속”이란 제3세계의 사회구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제3세계는 의식의 형식상 종속을 그 특징으로 하며, 종속사회는 억압사회의 삶의 양식(life style)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 결과 종속사회는 이중성을 띠게 된다. “이중성”이란 중심사회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함에 있어 종속사회는 모호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호성으로 인해 종속사회는 스스로 존재를 주장하다가 어느새 존재를 부정하는 애매함을 나타낸다. 중심사회는 말을 하고 종속사회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종속사회의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authentic voice)가 아니라 단순히 중심사회 목소리의 반향(echo)일 뿐이다. 따라서 중심사회는 언제나 말을 하고 종속사회는 듣는 것이 익숙해 종속사회는 침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침묵 문화가 형성하게 된다.

프레이리는 전통적 교육 형태가 피억압 집단을 물화(物化)시키고 소외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인식해 억압자의 교육방식이 침묵 문화를 보편화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이고 변증법적인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협동이 아닌



갈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비판적 담론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게 되고 일정한 이데올로기로 코드화한 교육은 침묵 문화를 조성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침묵 문화를 해체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이를 위해 억압자의 교육방식이 허구임을 깨닫고 피억압자의 교육학을 정립하는 일이 요청되는데 그 방법으로 기존의 비 대화적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화적이며 비판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 사회와 우리 교육에 만연된 침묵 문화를 과학적이고 실증적 조사 연구를 통해 우

리 사회의 교육문화에 젖어 있는 침묵 문화의 해체작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실에서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을 학생들이 노트에 적기만 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의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의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교육의 보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프레이리가 주장했듯이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의 각성을 뜻하는 “눈뜸”이고 “성찰과 행동의 변증법적 관계 맺음”인 만큼 맹목적이 아니고 꾸준한 실습을 통한 교육만이 침묵 문화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 문화의 완전한 해체 없이는 세계 일류의 민주사회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KAIF*